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의 육신을 비롯한 모든 것에서 애착을 끊어라. 영혼인 너희들이 카르마티트가 되어야만 그때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영혼에 큰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며, 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나?

대답: 육신을 떠나는 데 대해 영혼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들이 몸에 대한 애착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 몸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조차, 그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겪어야만 한다. 합류시대에 너희 자녀들은 두려움이 없다. 낡은 몸을 벗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큰 행복이다.

움 산티.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먼저 지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신봉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미 설명해주었다. 이것은 드라마에 정해져 있다. 아무도 드라마의 시작, 중간, 끝을 모른다. 황금시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황금시대 사람들은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슬픔을 경험하거나 울 일이 없다. 여기에서는 죽음을 무서워한다. 육신을 떠나면서 영혼들은 슬픔을 겪는다. 공포가 있는데, 이유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 또 슬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합류시대에 있다.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해주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고향이다! 그것은 신의 집이다. 여기는 너희들의 고향이 아니다. 신이 있고 영혼인 너희들이 거주하는 그곳이 집이라 불린다. 거기에는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트에 산다고, 바라트가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우리들, 곧 영혼인 우리가 그곳에 산다고 얘기한다. 그것은 영혼들의 고향이다. 이것은 인간들의 고향이다. 그것은 해방의 나라라고 불린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신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신을 만나는 데 대해 크나큰 행복을 느껴야 마땅하다. 육신은 영혼에 속하며, 영혼은 육신에 대해 많은 애착을 길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병에만 걸려도 영혼은 혹시 육신을 떠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무지의 길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 합류시대의 때에,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한다. 그러니 무서워할 것이 없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대단히 좋은 방법을 보여주었다. 불순한 영혼들은 내가 있는 해방의 나라로 올 수 없다. 그것은 순수한 영혼들의 고향이다. 이것은 인간들의 고향이다. 이 몸은 5원소로 구성되었다. 5원소가 너희들을 여기에서 살도록 끌어내린다. 공기, 물, 에테르 등의 원소들은 그곳 영혼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식의 대양을 되새기는 방법이다. 영혼들은 육신이라는 소유물에 적응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애착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영혼인 너희들은 사실 그곳의 거주자들이다. 너희 영혼들이 지금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희 영혼들이 순수해지면 너희는 행복을 받는다. 슬픔 같은 것은 아예 없다. 지금 이때에 이것은 슬픔의 나라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려와 역할을 하도록 5원소가 너희를 끌어내린다. 너희들은 분명 물질의 도움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연극이 계속될 수 없다. 이것은 행복과 슬픔의 연극이다. 행복할 때 너희는 5원소로 이루어진 너희 육신에 애착이 없다. 거기에서 너희는 순수 상태에 머문다; 너희는 몸에 애착을 갖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물질의 5원소에 대한 일체의 애착을 버려야 한다. 너희들은 순수해질 것이며, 그런 다음 너희 요가의 힘으로 너희의 육신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끌어당길 마या가 그곳에는 없는 것이다. 너희들의 육신은 요가의 힘으로 창조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슬픔이 없다. 이 드라마는 참으로 경이롭게 창조되었다! 이런 것은 매우 미묘한 내용인데, 너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주 영민하며 봉사를 지속하는 이들은 매우 명확하게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재물을 기부해도, 그것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이미 말해주었다. 부를 계속 기부하면서 너희는 또한 그것을 훈습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훈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저 글로 적기만 하면 훈습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말아라. 그래, 너희가 요점을 적어서 남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 보내줄 수는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희에게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저 글로 적기만 하며 종이만 낭비한다. 이 또한 너희가 내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적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적고 나서 나중에 내버릴 것이라면, 적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 역시 영혼들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훈습해야 한다. 아버지는 글로 적은 것을 외운 적이 없다. 아버지는 날마다 설명을 계속한다. 제일 먼저 너희는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한다. 오직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만이 영혼인 너희가 순수해질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가면 너희는 계속 순수를 유지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순수하게 머문다. 그 힘이 소진된 후에는, 5원소의 힘이 영혼들을 끌어당긴다. 너희 영혼들은 지금 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너희들은 지금 순수해지고 있다. 그러면 마치 버터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내듯, 너희가 쉽게 몸을 떠날 것이다. 너희 육신을 포함한 일체의 것에서 너희가 애착을 끊어야 한다. 너희들은 몸 없이 왔고 순수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해 애착이 없었다. 그곳에서는 영

혼이 몸을 떠날 때 아무도 울지 않는다. 어려움이나 질병이 없다. 육신에 대한 애착도 없다. 영혼들이 자기 배역을 연기하는 것과 같다. 영혼이 지닌 몸이 낡아지면, 그는 다른 몸을 취해서 맡은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거기에는 라반의 왕국이 없다. 지금 이때에는 아버지에게 가려는 소망이 있다. 바바가 말한다: 나를 기억해라. 이 지식이 너희 지각에 들어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는 순수해져서 내게로 와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다 불순하다. 그래서 5원소로 된 이 꼭두각시 인형에 애착을 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몸을 떠나야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순수해져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는 예전에는 나에게 속했다. 너희 영혼들이 나를 기억하고 또 다시 순수해져야 한다. 거기에서는 새 몸을 취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의사 등을 찾아가는데, 육신에 애착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제 바바에게 돌아간다는 행복을 느껴야 한다.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육신을 받은 것은 너희의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다. 그곳에서는 영혼과 육신, 둘 다 매우 건강하다. 슬픔의 흔적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매우 노력해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바바에게 가야 하는데, 몸을 버리고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나? 그렇지만, 너희가 요가를 통해서 순수해지고 카르마티트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너희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야 한다. 애초에는 영혼들이 힘있고 행복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다. 여기에서는 슬픔 때문에 사람들이 신봉 등을 행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른다. 오직 한 아버지만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행복이 있다. 여기에서 너희가 몸에 애착을 가진다고 아버지가 설명해주었으니, 너희는 그 애착을 없애야 한다. 이 몸은 5원소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이 마야다. 영혼인 너희가 그 두 눈을 통해 보는 모든 것 가운데 마야 아닌 것이 없다. 여기에는 모든 것에 슬픔이 있다. 더러운 오물이 참으로 많다. 천국에서는 육신이 최상급이며, 너희의 궁전 또한 최상급일 것이다. 슬픔 같은 것은 아예 없다. 이 연극은 예정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의 생각에 들어가야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사람들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말해라: 최소한 아버지를 기억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혼이다. 몸이라는 긴 꼬리를 달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몸에 간혀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나? 아버지가 설명한다: 이것은 라반의 왕국이라 불린다. 라반의 왕국에는 슬픔뿐이다. 황금시대에는 슬픔 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힘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육체의식이 너희를 완전히 약하게 만든다. 아버지가 말한다: 이 예정된 드라마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해방 같은 것은 없다. 이 드라마는 예정된 것이다. “일어나도록 예정된 일을 왜 걱정하느냐?”라는 말이 있다. 그 어떤 일이든 지나간 것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걱정할 것이 없다. 황금시대에는 좋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근심거리들이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이것은 드라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방법을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이 방법을 통해 너희가 내게 올 것이다. 버터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너희 영혼들은 그저 나를 기억하고 순수해지면 된다. 순수해지는 데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들이 라반의 왕국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는 이해한다. 그곳은 신의 왕국이다. 이것은 신의 왕국과 악마의 왕국에 관한 연극이다. 신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창조를 행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지식의 대양이라 불린다. 오직 그분만이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제 전체 지식을 이해한다. 나중에는 너희가 이 지식을 전부 망각할 것이다. 너희들은 심지어 이 공부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신분을 얻었는지, 그것마저 잊을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이 지식은 전부 사라진 뒤일 것이다. 신이 너희에게 2중의 왕관을 씌워 주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를 것이다. 이 사람조차 아무 것도 모르는데, 경전을 공부하는 자들이 무엇을 어찌 알겠느냐? 이 지식은 그들에게 가 닿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 와서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식이 너희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은밀하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눈에 보이느냐? 그저 이해될 뿐이다. 너희들은 영혼을 눈으로 본 적이 있느냐?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해된다. 신성한 시선으로는 영혼을 볼 수도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것을 본들 무엇을 이해할 것이냐? 영혼들은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이 있다. 너희들은 10명에서 20명의 영혼을 비전으로 볼 것이다. 너희들이 단 한 영혼만 보아서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비전을 보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영혼인지 지고의 영혼인지 그들이 어찌 알 수 있었겠느냐?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앉아 있으면서 너희가 작은 영혼들을 볼 수 있더라도, 그것이 영혼인지 지고의 영혼인지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 작은 영혼 속에 대단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 이해한다. 영혼이 주인이다. 그는

말은 역할을 행하기 위해, 한 몸을 버리고 다른 몸에 들어간다. 이것이 자연의 경이로운 기적이다. 만일 어떤 이가 몸에 병이 들거나 파산하면 그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즉 영혼이 몸을 떠나면 슬픔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느낀다. 그렇지만 그의 머리 위에 쌓인 무거운 죄를 어찌 없앨 것이냐? 너희는 기억을 통해 죄가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반 때문에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벗어나 해방되는 길을 보여준다. 그의 말은 단순하다: 나를 계속 기억해라. 너희들은 기억하면서 그 몸을 떠나야 하고, 그러면 너희의 죄 등이 모두 끝날 것이다.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은 이모네 집에 가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려 할 때, 마야가 많이 괴롭힌다. 마야는 너희가 나를 거둬 반복해서 잊게 만든다. 바바가 너희에게 그의 경험을 말해준다: 나는 기억하려고 매우 노력하지만 마야가 아직도 기억의 길 위에 장애를 가져온다. 우리 둘이 함께 있는데도 그렇다. 우리가 함께인데도 나는 되풀이해서 그를 잊는다; 이처럼 참 어렵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는 다른 무엇이 기억난다. 너희들은 노력을 잘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허풍을 떠난다. 그들은 열흘이나 보름간 차트를 쓰다가 그만둔다. 너희들은 이에 관해 신중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들이 모두 순수해지고 카르마티트 단계에 도달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임이 이해된다. 이것은 신의 복권이다. 바바를 기억하는 것은 기억의 실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너희의 지각을 사용하여 이해해야 할 문제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바바를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바바는 말한다: 너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신분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왕국이 어떻게 창조되느냐? 너희는 수없이 많이 왕국을 지배했고 그리고 다시 잃곤 했다. 바바가 매 5천 년마다 와서 너희를 가르친다. 그런 다음 라반의 왕국에서 너희는 죄의 길에 빠진다. 신인이었던 이들이 죄의 길에서 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측면을 아버지가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쉽다. 너희들은 몸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 오직 너희들이 나를 알아본 후에만, 요가의 힘으로 너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무엇을 하든 아무도 돌아가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와서 너희에게 정확한 요가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 요가의 힘이 반 사이클 동안 지속된다. 그곳에서 너희는 끝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온갖 일을 다 한다. 아버지가 와서 지식을 줄 때는 신봉이 남아 있지 않다. 지식의 날이 밝아오고 있으니 어려움은 더 이상 없다. 신봉은 방황하는 밤 시간이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속하는 묘목들의 지각 안에 들어 있다. 이런 것은 매우 미묘한 사안들이다. 지식은 경이로운 것인데,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드라마에 정해진 것이다; 이것 또한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신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나? 그렇지만 신은 오직 한번만 온다. 그가 와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이제 너희 자녀들의 지각이 넓게 확장되었다. 우리 둘이 함께 있다. 이 사람(브라마)이 어떤 이를 쳐다볼 때면 그는 그 영혼에게 평화를 기부하려는 의식을 가진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 가문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그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봉사할 줄 아는 너희 자녀들의 과업은 그들의 맥박을 짚어보는 것이다. 너희의 가문에 속하는 이들은 고요히 침묵할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순수해져서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려면, 5원소로 된 꼭두각시 인형에게 애착을 갖지 말아라. 몸을 떠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모두 없애라.
2. 기억의 순례 차트에 많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늘어나가라. 요가의 힘으로 영혼을 정화시켜라. 카르마티트가 되어 신의 복권에 당첨되어라.

축 복: 봉사를 함으로써 행복과 힘을 받고, 모든 이에게 축복 받는 자비로운 영혼이 되어라. 봉사의 즉각적이며 실제적인 결실은 행복과 힘의 결실이다. 너희가 봉사를 하면서, 영혼들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선행위다. 자선을 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들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또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축적된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너희 자신을 봉사자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봉사의 불멸하는 결실인 행복과 힘을 계속 받아라.

슬로건: 생각과 말의 힘으로 장애들의 장막을 걷어내라, 그러면 너희는 가려져 있던 유익의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